

“中, 나라별 대응강도 달라… 경제적 의존 높은 韓 첫 타깃”

차이나 뉴스&리포트

미국·캐나다·호주·독일 등
중국발 입국제한 국가 많지만
“양자관계 상호조치 고려 할 것
타 국가 보복강도 韩보다 약할 것”

중국이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의 첫 타자로 한국을 택했다.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말고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등 많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가장 공략하기 쉬운 상대였던 분석이 나왔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인훙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쉬운 타깃이 되었을 것”이라며 “중국은 관용에 있어 나름마다 대응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 등이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튿날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시민들이 비자 신청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스

대만을 방문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은 양자 관계의 맥락에서 상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다른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에 나서더라도 한국에 대한 것보다는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전일 한국 국민에 대해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한국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발 입국 제한에 우려를 표시한 다음날 바로 나왔다. 주일중국대사관 역시 일본 국민

에 대한 일부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발 승객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외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인도 등도 코로나19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 대상의 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해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도 동등한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언급했다.

왕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이 사실적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호소한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국가 간의 정상적인 인적교류와 교류협력에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싱가포르 국립대 알프레드우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중국이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실제 중국이 이런(보복 조치)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라며 “이는 국가로서 체면의 문제고, 중국 당국은 매우 강한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 강도는 한국과 다를 수 있다.

청두 쓰촨대 광중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현재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대응할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저울질 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국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으면 2023년도 중국이 목표한 경제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수십 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왕 대변인은 “많은 도시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나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항공업계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리오프닝 더뎌 아쉬워”

中 보복성 비자발급 중단에
방역당국 “국민 건강이 최우선”
항공사, 中 노선 복항률 10% 이하
코로나19 완화 이후까지 악영향 우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자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항공업계의 리오프닝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해당 소식에 항공업계의 분위기가 우울하지는 않다. 아직 중국 노선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튿날인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여행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전날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여행사는 준비했던 중국 여행 상품들을 출시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뉴스스

시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 한다”고 공지했다. 발급이 중단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 목적엔 ▲상업무역 ▲관광 ▲의료 ▲개인 사정 등이 포함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

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한국의 중국인 입국 조치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이에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영하는 중국 노선의 복항률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항공업계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LCC 관계자는 “인천 일원화 조치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항공사들이 이에 운항을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지역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들도 일주일에 1~2편 정도밖에 운항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업계는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이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번질 수도 있어 코로나19가 완화한 후에도 항공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

대한항공은 상하이, 광저우, 다롄, 선양 증편을 취소하고, 새해부터 재개하려 했던 선전·샤먼 노선을 취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중국노선을 추가로 보류하고 중국 9개 노선에서 주 10회 운항 횟수를 유지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다 이 일이 커져서 비즈니스 비자 발급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라며 “중국발 국내입국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수입차, 전기·하이브리드 등 SUV로 맞불

» 1면 ‘수요둔화 정면돌파’서 계속

◆수입차 ‘300만대 시대’…점유율 확대 드라이브

올해 수입차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수입차 300만대 시대’를 연 수입차 업체들은 신차 출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승세를 이어간다. 지난해 국내 시장 판매 1위를 달성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첫 대형 SUV 전기차 ‘더 뉴 EQS SUV’를 앞세워 기선 제압에 나선다. 107.8㎾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렸다. 배터리 1회 완충 시 유럽(WLTP) 기준 660㎞까지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대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뉴 XM’과 준중형 순수 전기차 S UV ‘iX1’로 맞불을 놓는다. 뉴 XM은 M 트윈파워 터보 보조 기술을 적용한 V8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된 PHE V 파워트레인을 장착, 최고 출력 653마력, 최대 토크 81.6kg·m을 발휘한다. 25.7㎾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WLTP 기준 최대 88km까지 전기만으로 주행 가능하다. iX1은 BMW가 프리미엄 컴팩트카에서 처음 선보인 순수 전기차다.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413㎞, 64.7㎾h의 배터리를 탑재됐다.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첫 번째 SUV 모델인 ‘폴스타 3’를 출시한다. 폴스타 3는 폴스타 브랜드

의 두 번째 전기차이며 첫 번째 SUV 모델이다. 폴스타 3는 압도적인 첨단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 출시 수입차 중 최초로 고정밀 지도(HD맵)을 탑재한다. 글로벌 시장에선 ‘구글’과 협업했지만, 국내에선 ‘티맵’의 HD맵을 적용한다.

폭스바겐은 티구안과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앞세워 올해 국내 SUV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 티구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수입 SUV이다.

지프는 순수 전기 SUV 어벤저를 내놓는다. 어벤저는 컴팩스를 닮은 디자인의 소형 전기차로, 지프의 제로 이미션 SUV 전략에 따라 개발됐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00㎞이며 편의 품목은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오토를 지원하는 10.1인치 인포테인먼트 등을 마련했다. 포드코리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럭셔리 중형 SUV인 올 뉴 링컨 노틸러스를 출시한다. 이 외에도 픽업트럭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등도 올 초 출시할 계획이다.

포드코리아는 지난해 포드 브롱코와 포드 익스피디션, 링컨 노틸러스, 네비게이터 등을 출시하며 SUV 라인업을 강화했다.

2019년 노재팬 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일본 완성차 브랜드들도 올해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토요타의 렉서스는 올해 2종의 신차를 국내 출시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중형 순수 전기차 SUV인 RZ다. 렉서스 최초 전용 BEV로 100% 전동화를 실현한 제품이다. 대형 하이브리드 SUV인 완전변경 RX도 들어온다.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확대하고 최신 편의 및 안전 품목을 대폭 늘려 기함급 SUV에 맞는 구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SUV인 CR-V를 올 상반기 중으로 한국시장에 출시한다. 중형 세단인 혼다 어코드도 디자인을 완전히 바꾼, 완전 변경 모델로 들어온다. 최근 1~2년간 한국시장에서 신차 출시에 신중을 기해온 혼다가 ‘혼다 어코드’의 명성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